

드림의 여유

완도 청산도 슬로길

관광객 발길 잇는다



공연 등 행사성 탈피한 '걷기 축제' 지역축제 새모델 제시로 사계절 관광지 우뚝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에 이어 '국제 슬로시티연맹 공식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에 생태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슬로걷기 축제' 기간 동안 6만5000여명이 청산도를 다녀갔으며, 6월말 현재 지난해 11만명보다 65% 증가한 18만 2000여명이 방문했다.

'슬로걷기 축제'는 공연이나 전시성 행사를 탈피해 '걷기'라는 새로운 테마를 중심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 23일간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처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완도~청산도간 여객선 운행횟수가 주중 1일 4회에서 8회(주말 최대 25편) 증편됐으나 모두 매진됐다. 또 청산도내 숙박업소와 식당이 모두 만원을 이뤄 청산도뿐만 아니라 완도읍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느리게 걷고, 웃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완보하는 '청산완보 프로그램'을 통해 슬로길 전 코스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걷기, 체험, 전시,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슬로길 100배 즐기기' 프로그램은 슬로 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청산도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객 수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관광객들의 편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무분별한 행사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다"며 "이처럼 좋은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평가대상 축제에 포함되지 않아 축제 평가기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민선 5기 1년

서삼석 무안군수

“한·중 미래도시 건설 최우선”

“지난 1년 동안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 무안 건설을 목표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민선 5기 1년간 한·중 미래도시 건설과 무안 국제공항,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많은 행복마을 7개소와 전원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 농어촌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다.

군은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버스도움미제'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항공특화단지 개발

정부 지원 이끌어 낼 것

열린행정 주민결의로

항공특화단지 개발은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을 타깃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면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서 군수는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서 무안기업도시내 '한·중 국제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J프로젝트,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여수 세계엑스포 개최 등 인근지역 국제행사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해 공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 군수는 "친환경 농·수산업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된 만큼 농·수산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은 전남에서 가장

2006년부터 군정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중인 '주제별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해 각종 현안사업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과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600여 건 공직자의 봉사시책으로 추진중인 '옴므 서비스 담당제'를 더욱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무안군 으뜸 서비스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새 얼굴

수용자 사회 안전 복귀 도울 것

선규철 목포교도소장



"수용환경과 수용자 처우개선을 통해 수용집사를 엄정하게 확립하고 교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선규철(59) 소장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앞서가는 교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소예정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형' 교도작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 출신인 선 소장은 지난 1981년 간부후보 24기로 교정공무원에 입문해 영동포구치소 총무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청송 제2 교도소장, 강릉교도소장, 순천교도소장 등을 지냈다.취미는 등산.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물놀이 하며 책 읽고 '피서지 문고' 인기

새마을문고 목포지회 운영

새마을문고 목포지회(지회장 김귀선)가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피서지 문고'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지회회는 아동서적과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서적 300여권을 비치하고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목포지회회는 지난해 평화광장에서 열린 '목포 해양문화 축제' 때에도 1000여 권의 책을 제공한 바 있다. 1972년에 출범한 새마을문고 목포지회는 '피서지 문고'를 비롯해 알뜰도서관, 독서경진대회, 이동도서관 등을 운영,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귀선 지회장은 "앞으로 독서경진대회와 문화기행 등을 여는 한편 취약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책 읽는 문화'를 널리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전 북

정읍시 한우 소비촉진 나서

가격안정대책 마련

구제역 여파로 한우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해 한우 사육농가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한우 가격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한우 산지가격(600kg 기준)은 337만7000원으로 지난해 말 533만7000원보다 37% 하락한 반면 사료 값은 올레 들어 평균 10% 올랐다.

구제역으로 출하가 지연됐던 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구제역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돼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5일 긴급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축협, 한우협회, 축산농가와 함께 농축산센터 소장을 분부장으로 하는 4개팀의 '소 값 가격안정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 가격 하락방지를 위해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소비촉진

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자율적인 소 사육두수 감축 및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브랜드 경영체연합 유통체계 구축 ▲매주 급요일 한우고기 먹는 날 지정·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연말까지 1830 두(암소)의 자율도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5일 현재 58 두를 도태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협회와 정읍농협 주관으로 한우고기 할인판매와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종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인 정읍의 특산물 판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말 할인 판매행사를 가짐은 물론 지역축제와 단풍시즌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판매 이벤트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농가의 배합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보리 등의 사료 작물 재배면적을 올해 3400ha에서 내년에는 4000ha로 늘릴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쌍천 이영춘 박사 기념관 준공 음악회



쌍천 이영춘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백진현)는 8일 오후 7시 '이영춘박사 기념관 준공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기념관은 군산시 개성동 이 박사의 생가를 개조해 만들었다.

이번 음악회는 판소리·대금·피아노·색소폰 연주와 요들송, 합창 등 다채로운 퓨전 공연으로 펼쳐진다.

백진현 이사장은 "평생동안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신 이영춘박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의 흔적을 이 박사는 한국인 최초의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해방 후 군산에 '개정중앙병원'을 설립하고 농어촌 위생은 물론 농촌주민의 교육과 영아보호에 헌신했다.

전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00호인 '이영춘 가옥'은 일본강점기인 1920년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熊本)가 별장으로 지은 것으로 한국과 일본, 유럽식의 건축법이 복합된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꾸며져 오래전부터 영화와 드라마 촬영장소로 활용돼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1~2차례 선외기에 몸을 실은 채 육지 나들이에 나서고 있다. 소형 선



전주한옥마을 찾은 외국인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들이 다도(茶道) 체험을 하고 있다. 전주 시와 한국 국제협력단은 지난 1월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연수 협약을 했다. (전주시 제공)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들이 다도(茶道) 체험을 하고 있다. 전주 시와 한국 국제협력단은 지난 1월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연수 협약을 했다. (전주시 제공)

지자체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싸움에 9년째 뱃길 뚫

속터지는 군산 비안도 주민들

도선운항 요청 청와대·권익위에 탄원 계획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뱃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주민들이 이번에는 자치단체간의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싸움에 속이 터지고 있다.

군산시 비응량에서 뱃길이 30분이 걸릴 때면 뱃길은 1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비안도 주민들은 육지 나들이 할 때만 뱃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만금방조제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9년 전부터 군산~비안도간 새만금방조제 뱃길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근에 비안도와 가까운 가력도에 접안시설과 화장실, 매표

소의 풍량이 심하게 불 때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데다 연료비도 만만치 않아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광섭 비안도 어촌계장은 "9년째 여객선 운항이 끊긴 섬은 전국에서 비안도가 유일하다"며 "선외기가 없는 주민이나 관광객은 개인 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방조제공사 가 끝나면서 군산~비안도간의 뱃길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근에 비안도와 가까운 가력도에 접안시설과 화장실, 매표

소, 대기소 등의 시설이 들어선 도선장(나루터)을 설치했지만, 이번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선장 승인을 내주지 않아 뱃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방조제 관리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심하게 다투자 농림수산식품부가 가력선착장 사용승인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는 농식품부와 전북도가 지자체간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비안도 주민들은 '도선 운항을 외면하는 관계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조만간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전북도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15개 업체의 대출이자를 줄여준다. 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보증지원에 따른 2%의 이자를 보전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기업이 나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

를 제공하고 기술과 경영 비법을 지도하며 각종 자금 지원을 알선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절감 혜택을 받으며, 업체는 대출액에 대해 3.97%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김제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

김제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의 '201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4월 유치한 국립 민간육종단지(우수사레)로 인정받았다. 시는 그동안 김제시는 핵심과제 48개 등 총

53개 사업으로 이뤄진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의 추진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이견식 시장은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축된 공약사업 이행체계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남원시립도서관 새롭게 단장 15일 개관

남원 시립도서관이 새롭게 단장하고 15일 개관한다. 남원시는 최근 시립도서관 1층(552㎡)을 리모델링해 일반 열람실과 장애인 열람실, 장애인 북카페, 아동·유아자료실 등을 갖췄다. 시는 시립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도서확보와 독서인구 저변 확

대를 위해 '도서기증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기존된 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비하면 시민이 열람토록 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향토도서는 영구히 보관 향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노인대상 노후설계 교육사업 선정

순창군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대상 노후설계 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8월 29일부터 4박5일간 10회에 걸쳐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노인 680명을 대상으로 ▲제3기 인생대학 과정 ▲미니메드(기초건강 교육) 스텝 과정 ▲골드-룩 과정(영양·식단 실습)을 통해 노후 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게 꾸며진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